

청년이 떠나는 광주·전남... 수도권 집중 가속화 '백약이 무효'

청년들이 광주·전남을 등지고 있다. 올 상반기 광주는 900여명, 전남은 1만명 가까운 인구가 순유출됐다. 광주는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인구 순유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전남 모두 20대가 가장 많이 유출됐고, 광주의 경우 전년동분기 대비 올 2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이 4.6% p(8.3→12.9%)나 치솟은 게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인구 이동 동향 및 고용동향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순유출 인구는 광주 901명, 전남 9799명이다.

광주지역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719명), 20대(-823명)는 순유출 됐고, 30대(337명), 40대(185명)는 순유입 됐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북구(-3727명), 서구(-2263명)는 순유출됐고, 동구(1412명), 남구(1645명), 광산구(294명)는 순유입 됐다.

수도권 집중화가 완화되기는커녕 가속화되며 다른 현상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 분권화 정책

호남지방통계청 발표 인구·고용 동향 분석

올해 상반기 광주 900명·전남 1만명 떠나
청년실업률 광주 4.6% 치솟고 전남도 증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화 서둘러야

광주의 경우 지난해 4분기 2656명, 올 1분기 603명, 2분기 308명 등 최근 3분기 동안 모두 3567명이 순유출돼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올 2분기 광주 실업률은 4.0%

호남지방통계청은 자료에서, 2분기 광주 실업자수는 31만2000명으로 30~50대 연령층이 감소했지만, 15~29세 및 60세 이상 연령층이 증가하면서 전년동분기보다 4000명(1.3%) 늘었다고 분석했다. 광주는 인구순유출 뿐 아니라 출생아 수도 2016년 1만1580명, 2017년 10120명, 2018년 910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 상반기 인구이동을 연령대로 보면 10대(-1038명), 20대(-6627명), 30대(-1367명)는 순유출됐고, 50대(497명), 60대(507명)는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5208명)이 순유출 인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목포(-1429명), 구례(-702명), 해남(-623명), 화순(-484명), 영암(-443명) 순으로 순유출됐다. 반면 순천(1144명), 나주(843명), 고흥(39명)은 순유입 됐다.

올 2분기 전남 실업률은 3.3%로 전년동분기 대비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는 33만7000명이며, 전 연령의 실업자 수가 줄었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걷고 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를 이날 모두 해제했으며, 앞으로 낮 최고기온도 30도 수준에 머물 것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폭염 끝... 이 비 그치면 가을이 온다

광주·전남, 오후까지 50~100mm ... 천둥·번개 동반 시간당 30mm 폭우도

22일 오후까지 강한 비가 내리면서 광주·전남에 올 여름 맹위를 떨치던 폭염은 사라질 전망이다.

기압골에 동반된 차가운 공기가 만나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비는 22일 오후까지 50~100mm 가량이 내리고,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21일 오후 4시를 기해서는 전남 4개 시·

군(영광·광양·장성·구례)에 호우 예비 특보가 발효됐다. 특히, 22일 0시부터 낮 12시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이날 오후까지 내리다가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는 21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해제했다. 비가 그친 후 광주·전남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 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22일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대 붕괴·산사태·저지대 침수 등에 대비하고,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소미아' 연장 여부 오늘 NSC 열어 결정

靑 "다양한 변수 종합 검토"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2일에는 김 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다. 비건 대표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설화수 몰레그니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니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